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장 후보 심사 강화

정보문화원장 후보 4명 면접 치르고도 재공모

전문성에 중앙부처와 인맥까지 고려한 듯

광주시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로 4명을 선정하고 면접을 치렀지만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민선 6기들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대표 재공모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자리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 가운데 광주복지재단 대표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공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진흥원 임원 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4명을 면접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재공

모하기로 했다. 공모에는 9명이 지원해 김용관 현 진흥원장, 김영주 전 진흥원장, 김선출 진흥원 기반조성팀장, 신현구 동북아 전략연구원장 등 4명이 면접을 치렀다.

면접을 맡은 임원 추천위는 이사회 추천자 3명, 시와 시의회 추천자 각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임원 추천위가 면접을 거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다음달 3일 이사회에서 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면접자 각각에 대한 지표별 평가에서 운영비전 등이 기대를 충족한 지원자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임원 추천위는 일부 지원자의 경우 문화산업 경험이 부족하고, 일부 지원자는 조직 장악 능력 및 리더십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문화산업진흥원이 향후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개발원 등과 각종 사업 등을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 만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요 사안 등을 풀이할 인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화산업에 전반에 걸친 전문성만 우선 순위로 평가하는 게 아닌, 중앙부처와의 인맥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 후보 판단기준이 엄격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면접 당일 적격 점수표를 산정해 순위로 매긴 뒤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원자는 “재공모 방침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신 원장은 “굳이 나를 언급하지 않더라

도 진흥원장을 두 번 했다는 지원자나, 현 진흥원장이 부적격자라면 지금까지 부적격자들이 진흥원장을 맡았다는 말이나”며 “더욱이 무슨 사유로 부적격인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2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임용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주경남 행정자치위원장도 “면접 점수표를 모두 산정해 순위를 매긴 뒤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임원 추천위에 점수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미 합작 투자 사업인 이른바 ‘캠코 사업’에 출자해 손실을 낳는 등 조직채산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 출연기관이다.

광주 119 특수구조대 내년 신축 평동 119 안전센터 신설 추진도

예산 29억·39억 책정

더부살이 중인 광주 119 특수구조대 건물 신축과 평동산단 소방수요를 담당할 평동 119안전센터 신설 사업이 내년엔 함께 추진된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특수구조대 건물 건립에 29억원, 평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39억원의 예산을 책정,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수구조대는 산악·수난사고, 대형 재난이나 화재 등에 긴밀하게 대처하려고 창설돼 지난 12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항공구조구급대, 산악구조대, 특수구조대, 현장지원팀 4개 팀 43명으로 구성됐다. 항공구조구급대, 산악구조

대, 현장지원팀원들은 업무 특성에 맞춰 공항, 무등산,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다만, 특수구조대는 광주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머물고 있어 거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광산구 쌍암동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평동 119안전센터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이다.

평동산단의 소방수요 증가와 대형 화재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예결위 워크숍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북 부안 농협수련원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엔 ‘지방예산결산심사’와 ‘의정활동 손자병법’의 저자인 최민수 국회의정연구원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최교수는 올해 광주시 예산서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정현 예결위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예산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한 시의원들 간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다음달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원들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현미경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둘째 날인 25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공동중식에서 이산가족들이 모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여수서 총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조충훈 순천시청) 오는 26일과 27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민선 6기 2차년도 전국 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 한국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자!’라는 주제로 전국 기초단체장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개회식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하고 기여한 각계의 노고를 위로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제1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을 열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6일 경주 선언문에서 모았던 마음 가치를 되새기면서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여수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 지방자치 발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초청 토론회를 갖는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여해 기초 강연과 패널 토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민역량·도시환경 조화로 U대회 성공 효과 극대화해야”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활력도시 조성 토론회’서 주장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성공 개최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역량과 도시환경, 도시의 제도과 정책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공동체시민회의와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한 U대회 성공개최 이후 활력도시 조성방안 토론회에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예정이다.

김 위원이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 따

르면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 공감, 협력, 연대 등의 가치를 도시공간 디자인과 청년정책, 정치활성화,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시민사회 영역과 결합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활력도시 정책의 방향과 과제 로 ▲도시공간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여갈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도시 디자인 작업 진행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청년이 행복해지는 도시 조성 ▲창의적인 시민의 아이디어가 도시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형성 ▲공존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 회복 ▲지역의제 창출과 인재육성 등 시민사회 역량 제고와 세대 간 연계성 확보 ▲개방·공유·협력 행태로 다이나믹 행정이 구현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미경 U대회조직위 국제협력공보담당관은 “U대회 큰 수확중 하나는 광주가 스스로 간직했던 프레임을 깨고 향후 ‘스포츠투리뷰 시티 광주’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U대회 성과 활용을 위한 과제로 우선 10여년 간의 대회 준비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광주시 공

유자원으로 체계화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기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의 주력 서비스산업으로 스포츠 육성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화 및 고용창출 지향 ▲U대회가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차세대를 위한 다양한 대회 유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청년정책과의 연계 등을 주장했다.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U대회를 바탕으로 광주 관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 교수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쇼핑과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전력하는 기초체력 키우기 ▲예술관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흠어진 문화콘텐츠를 깨는 지구력 키우기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靑 대변인 정연국·춘추관장 육동인씨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식인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54) 전 MBC 시사제작국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민경욱 전 대변인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직한 이후 20일째 공석이었다.

정 신임 대변인은 울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MBC에서 런던특파원·사회2부장·선거방송기획단장·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아왔다.

박 대통령은 또 공석이던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에는 육동인(53)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춘추관장 자리는 전광삼 전 관장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지난달 22일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후 33일째 비어있었

다.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육 동인 관장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뉴욕특파원과 논설위원, 금융·사회부장을 지냈으며,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거쳐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연국 대변인 육동인 춘추관장

10. 29(목)
* 2015인분 순창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15:00~16:00)
* 청정원과 함께하는 개막축하 공연 / 전주MBC 공개방송 오송근, 현숙, 진성, 헬로비너스 등 (18:20~20:00)

10. 30(금)
* 청정원과 함께하는 2015인분 고추장비빔밥 만들기 (12:00~13:00)
* 뮤지컬 '고추장' (18:00~20:00)

10. 31(토)
* 정류장떡볶이 모자이크 (12:00~13:00)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13:00~14:00)
* 순창 5대 명장 추모공연 (박대리, 왕기석, 박미선 등) (18:00~20:00)

11. 1(일)
* 2015인분 순창고추장 비빔밥만들기 (12:00~13:00)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13:00~14:00)
* 폐막식 / '부활' 콘서트 (18:00~19:00)

2015. 10. 29(목)~11. 1(일) 4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읍 일품공원

주최/주관: 순창군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축제홈페이지! www.jangfestival.co.kr

"시내권에서부터 순창모범택시(운전자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서늘택시)를 탑승하세요"